

2018년 8월 2일, 제주시 도남동 강인생 씨 자녀댁, 이효순 조사.

강인생(여, 1928년생,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출생, 제주4·3사건을 피해 애월읍 꽈지리와 서울 등지에서 잠시 살다가 애월읍 어음리에 정착하여 50여 년째 살고 있다.

- 줄거리: 재주가 좋은 허웅애기를 저승에서 일을 시키려고 강림차사가 데리러 내려오는데 아무도 숨겨 주지 않아서 결국은 저승으로 불려 가서 베를 짜게 되었다. 베를 짜면서 이승에 두고 온 자식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저승에서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이승 집에 가도록 허락을 하였다.
동네 할머니는 죽은 허웅애기가 밤에 일하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저승에 못 가도록 가두었다. 강림차사는 내려와서 지붕 위에서 허웅애기의 혼을 빼앗아 그때부터 이승과 저승을 오가지 못했다.

[제보자] 허웅애기가 막 재주가 존 사름이주기. 경허난 저승 일 시키젠 둘앙 가 불엇주기.

[조사자] 누구가 둘앙 가마씨?

[제보자] 저승에서 왕 둘앙 간. 경허난 둘앙가젠 허난, 그 사름은 재주도 좋고 얼굴도 막 곱고 허난. 저, 고사리 겪으레 간. 돈고사리 생고사리 골리 잡안 오독독이 겪어다가 삼 년 묵은 단 장물에 오 년 묵은 춤지름에 오시록 볶아 된 앞동산에 뒷동산에 건불리레 나간 보난 강림차사가 오는 거라. 허웅애기 잡으레. 경허난 허웅애기가

“어디레 옴이우꽈?”

“허웅애기 잡으레 가는 사람이우다. 허웅애기 집이 어딜로 어떻 허영 갑니까.”

허난, 허웅애기 집은 그 사람이 허웅애기난 그리치질 않을 거주기. 제대로 아니 골안

“율로 넘엉 절로 넘엉 갑니다.”

딴 디로 가르쳐 둔에 허웅애긴 와랑와랑 집으로 둘려완 어멍, 아방신디

“아이고, 날 잡으레 왔우다. 날 살려 줍서.”

어멍, 아방신디

“날 뭘로 나 줍서.”

어멍, 아방도 말은

“닌 가라.”

허멍 안해 쥐주기. 경허난 할망신디 강

“할마님아, 할마님아, 날 잡으레 왔우다. 날 어디레 곱져줄서.”

“는 느대로 가라.”

허영 안해 주고 허난 하르방신디 가도 그거 따시 안해 줘. 말도 헤 간다 오도 똑이 안해 주난 허옹애기는 아무데 가도 어멍신디 가도 안해 줘. 하르방신디 가도 안해 줘. 골목드레 확 곱으난

“나 이디 곱앗젠허지 맙서.”

강림차사 소문 들엉 온 거라.

“허옹애기 어디 갓수가?”

골목드레 곱앗젠허지 랜 거라. 골목에 강 오꽃 둘양 가 불언. 경허난 이제 허옹애기는 둘양 강 그디 둘양 간. 막 재주가 좋고 얼굴도 곱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난 베를 짜렌 허영 베를 짜당 보난 눈물이 나는 거라. 아기들이 한한현디 나만 오랑 눈물이 베에 눈물이 괄괄 허난

“어떻 허난 영했이?”

허난

“열다섯 난 아덜에. 열 살 난 아기에. 다섯 살 난 아기에. 세 살 난 아기에 몬 딱 집에 놔 뒹 오난 눈물이 베에 젖없우다.”

허난

“게난 밤에랑 가곡 낮에랑 오랑 일허라.”

허난 밤엔 오곡 낮엔 가곡 헷주게. 동네 할망은 오랑

“아니, 죽엇젠허지 사람이 어떻 허영 일했이니?”

허난 영영허연 밤에 오랑 허곡 낮엔 가곡 허렌 헷젠허난. 그 말을 어디 하간 디 골아 부난 동네 사람이 못 가게 허연. 고팡에 갇혀 불언. 갇형 못 가게 허난

나 보내 주伦 막 울없이난 강림차사 또 온 거라. 왕 보난 고팡에서 울없이난 글로 와그네 집 겁데기로 칼로 질렁 대망일 빠아 가 불고 몸은 그디 죽엉 싯고. 할 수 엇이 죽어불고. 저승에서 그 사람 혼만 돌아가 불고. 그 집 아이들은 어멍은 낮에 가고 밤에 오는디 알아저게. 저승 강 오지도 못 허고 집에서 아이들만 살당 어떻사 헷인지 모르쿠다게. 경헷이난. 재주가 좋고 얼굴도 곱고 막 허난 저승에서 욕심 내언 짚은 때 둘양 가 불언.

- 핵심어: 허옹애기, 강림차사, 베짜기, 재주, 눈물, 혼, 저승, 아기, 이승, 고팡, 밤, 낮